

외국인 대상 산재보험급여 지급은 전체 보험급여 대비 높지 않고, 산재보험기금의 재정도 안정적 관리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9.11.(금) 한국일보, “외국인 산업재해 신청 2년 새 4배 매년 지급액 3000억대... 재정 비상”

-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은 2년마다 4배로 급증 매년 3,000억원 웃도는 금액 지급, 산재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36만7,212명에서 ...2025년 50만 8437명으로 크게 늘었고, 지급액도 2023년 3,058억원에서 2025년 3,363억원으로 확대 추세
- 산재신청자 비율(중국인)은 산재보험료 부과액은 491억원 수준, 실제 지급 산재급여는 2,245억원에 달했다. 수입보다 지출이 약 4.6배 더 많음
-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2023년 36만7,212명에서 지난해 50만 8,437명으로 38.5% 증가하는만큼 촘촘한 관리가 필요

2. 설명 내용

- 산재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,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약 4%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
- 산재보험 신청건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(업무상 질병기준 최근 3년 1.6배 증가)하고 있고, 지급액 또한 인정 기준 개선 및 지급단가 조정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외국인의 지급액은 '23년 3,058억원, '24년 3,237억원, '25년 3,363억원으로 소폭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

* 전체 보험급여 지급대비 외국인의 보험급여 지급 비율은 '23년 4.2%, '24년 4.24%, '25년 4.2%로 큰 변화가 없음

**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은 '23년 9,543건, '24년 10,161건, '25년 11,332건, '26.7월 기준 8,314건

□ 산재보험기금 재정은 보수총액 상승, 적용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는 양호하고, 집행 또한 매년 산재신청 및 지급액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.

○ '25년 말 기준 적립금은 26조 5,954억원으로, '06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 상태이고, '26년도 포함 누적 적립금은 27조 8,094억원으로 전망되어 보험급여, 예방사업비 등 지출 증가에도 재정수지 흑자가 전망되고 있습니다.

* '16~'25년까지 10년간 평균 수지는 1조 4,745억원임

○ 올해 산재보험기금은 총 8조1천4백60억여원으로, '26.7월말 기준 63.2%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집행 또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철홍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최대훈 (044-202-8835)